

배추·깻잎·열무까지 ‘金값’ 된 채소

배추 평년보다 42.4%↑·시금치 59.5% 올라 재배면적 감소에 때 이른 무더위·가뭄 영향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高)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겹살에 이어 농산물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때 이른 더위와 가뭄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올여름 지난해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농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가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이 중 채소류 가격을 보면 배추(7.7%), 상추(6.3%), 시금치(28.5%), 양배추(29.1%), 깻잎(21.7%), 무(15.6%), 열무(58.6%), 오이(14.3%), 토마토(4.8%) 등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

물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가격은 이따부터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산물 생산량 및 가격은 일조량, 강수, 기온 등 기상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19년 봄에는 저온 현상으로 당근 가격이 올랐으며, 2018년 7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 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청은 6월 기온은 평년(21.4도)과 비슷하거나 높고 7월(평년 24.6도)과 8월(25.1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했다.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비가 관측된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온, 강수량 등이 농산물 작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재배 시기 및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다

가계대출 1조5천억↓…사상 첫 감소

1분기 가계신용 1859조…6000억↓ 9년만에 감소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859조를 기록하며 9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은 1752조원으로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당국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6000억원 감소한 185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9년 만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을 더한 액수다.

역대로 봐도 가계신용이 감소했던 적은 2003년 1분기(-1조4000억원), 2003년 3분기(-1조), 2009년 1분기(-3조1000억원), 2013년 1분기(-9000억원), 2022년 1분기(-6000억원) 등 관련 통계 편제 이후 5차례가 유일하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조5000억원 감소한 17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광주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점자안내문 배포

광주지방국세청은 24일 시각장애인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점자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많은 시각장애인은 신청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시각장애인연말합회와 협업체 ‘장려금 신청 점자안내문’을 제작했다.

또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안내문 내용을 소리파일로 녹음해 소리샘과 시각장애인연말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광주국세청은 시각장애인 상담을 위한 전담 전화(010-9748-4068)를 마련해 장려금 상담과 신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초대형 LNG운반선 4척 동시 명명식
현대삼호중공업이 창립 이래 최대 프로젝트의 첫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4일 영암 회사내 2만평에서 노르웨이 크누센사가 발주한 17만4000CBM급 LNG운반선 4척의 명명식을 가졌다. 김형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선주사의 사주 트리크베 세글렘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선박 4척은 선주 측 인사에 의해 ‘산탄테르 크누센’, ‘우엘바 크누센’, ‘페르 크누센’, ‘엑스트레아두라 크누센’ 호로 각각 명명됐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차그룹, 4년간 국내에 63조 투자…“미래사업 허브로”

한국 중심 경쟁력 강화…차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선도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해 미래 사업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사가 전동화·친환경·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집중해 우리나라를 그룹의 ‘미래 사업 허브’ 역할과 리더십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더욱이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등 그룹의 다른 계열사까지 합하면 전체 국내 중장기 투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미래 성장의 핵심축인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주력한다. 해당 분야에 현대차·기아·모비스는 총 1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순수 전기차를 비롯한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및 친환경 전 분야에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순수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한다.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고성능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시설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동화 및 친환경 제품 라인업 다양화, 제품 성능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 등 PE(Power Electric) 시스템 고도화, 1회 충전 주행거리(AER·All Electric Range) 증대 기술 개발 등 통합적인 제품 경쟁력 향상을 추진한다.

삼성, 5년간 450조 투자·8만명 채용

삼성 미래 준비 전략…‘역동적 혁신성장’ 방침

삼성이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 신성장 IT 분야에 45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국내에도 이 중 80%인 360조원이 투입된다.

또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상생협력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도 육성한다.

24일 삼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신성장 IT에 집중 투자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한다. 기존 5년간 투자금액인 330조원 대비 30% 이상(120조원) 증가했다. 국내 투자는 25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종전보다 40% 이상(110조원) 늘었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AI·6G(차세대 통신)와 같은 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이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이번 투자를 통해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미국과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 ‘초격차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팹리스(설계)는 ▲고성능 저전력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5G·6G 통신모뎀 등 초고속통신반도체 ▲고화질 이미지센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파운드리(위탁생산)도 차세대 생산기술을 개발·적용해 미래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삼성은 바이오 주권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 나가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신화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AI, 6G 등에 대한 투자를 예고했다. AI는 글로벌 역량 확보와 기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6G도 핵심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표준화 주도해나가기로 했다.

삼성은 관련 산업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고용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신규로 8만명을 채용한다. 삼성은 지난 2018년 발표한 ‘3년간 4만명 채용 계획’을 초과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도 3년간 4만명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해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뉴스1

포스코, 스테인리스 新기술 국제스테인리스협회 금상

포스코가 국제스테인리스협회 회가 주관하는 제26차 국제스테인리스협회 컨퍼런스(ISSF-26)에서 기술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기술은 고성능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 ‘430RE’ 제조 기술로 올해 스테인리스 관련 최우수 기술 개발 사례로 선정이 되면서 포스코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최근 가전사들이 세탁기, 건조기 등을 대형화하면서 드럼 바닥면의 성형성을 높이고, 표면 줄무늬 결함 현상(Ridging 리징)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탈수 시 용수 및 전력 절감 효과를 위해 드럼의 고속회전 성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드럼 중앙부를 연결할 때 판재를 접어 압축해 주는 방식(Lock Seaming)보다 접합력이 우수한 용접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기존 강종 대비 고성능형, 7리딩성, 용접부 내식성 등을 향상한 특화 강종인 430RE를 개발했으며 국내 가전사는 물론 해외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양만권, 기능성화학 소재산업 중심지로

광양만권경제청, 화학분야 투자유치 자문회의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3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2022년 광양만권경제청 화학분야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양만권경제청 화학분야 투자유치 자문위원단은 화학기업 대표, 임직원, 화학공학부 교수, 연구원, 컨설턴트, 경영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11인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기는 2년(2021년 12월 15일~2023년 12월 14일)이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 위원들은 광양만권 전략산업으로 기능성 화학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양만권은 인근에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기능성 화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이 연구 장비나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소재 개발과 시험인증 등이 용이하다.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 및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은 환경친화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광양만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농어촌공사 ‘인니 다목적댐 건설’ 설계 수주

K-농업관계 기술력 입증…연이은 수출성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독보적인 K-농업관계 기술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마렝겡(Matanggeng) 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설계와 컨설팅 사업을 36억원에 수주하고 최근 자카르다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마렝겡 다목적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농업·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전력생산을 위해 건설한다. 규모는 높이 120m, 길이 699m, 총저수량 5억6000t, 관개면적 2만ha, 발전용량 28MW급이다.

댐이 준공되면 생활·공업용수를 비롯해 인근 약 2만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댐을 이용한 수력발전을 통해서 연간 약 85GWh의 전기 생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기호 기자